보건복지부 | 보도참고자료 | [illegible]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. 3. 14.(금)

중앙생활보장위원회(제74차) 개최

-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활동 본격 개시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**3월 14일(금) 12시**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7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(이하 '위원회')*를 개최하여, 2025년도 위원회 운영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.

* 중앙생활보장위원회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,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, 전문가 등으로 구성(총 16인)

이날 회의는 올해 1월 구성된 **제12기 위원회**('25.1.1. ~'26.12.31.)**의 첫 회의이다**. 그간 위원회는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**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*하였다.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%에서 32%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 바 있다.**

* 4인가구 기준,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: ('23) 5.47%, ('24) 6.09%, ('25) 6.42%

이날 회의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(생계·자활, 의료, 주거, 교육)별 **소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점검**하고, 올해 **위원회 운영 계획과 급여별 주요 쟁점을 공유**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위원들은 2025년 제도 개선사항과 더불어, **기준 중위소득 논의 방향, 각 급여별 선정기준*과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**하였다.
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: "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."

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"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('00.10.1.) 25주년, 맞춤형 급여 개편('15.7.1.) 10주년이 되는 해다"라며, "우리 제도가 앞으로 나갈 방향과 더불어 **그간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**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"라고 말했다. 또한, "**꼭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**이 될 수 있도록 **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검토**하고, **부양의무자 기준 완화** 등 **제도개선 논의에도 힘써주기를 위원들께 당부**드린다."라고 밝혔다.

<붙임>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	책임자	과 장	박민정 (044-202-30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웅채 (044-202-306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**

□ 법적근거
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

□ 구 성

○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

- 당연직(6인): 복지부 장관(위원장) 및 국토부・교육부・기재부・행안부・고용부 차관
- 위촉직(10인): 전문가(5인), 공익을 대표하는 자(5인)

□ 위원회 기능 및 역할

○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·의결

-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
-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
-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

직 위	성 명	소 속
당연직 위원 (6인)	조 규 홍	보건복지부장관(위원장)
	진 현 환	국토교통부 제1차관
	오 석 환	교육부 차관
	김 윤 상	기획재정부 제2차관
	고 기 동	행정안전부 차관
	김 민 석	고용노동부 차관
위촉직 위원 (10인)	석 재 은	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(부위원장)
	김 태 완	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
	신 현 웅	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
	박 미 선	국토연구원 연구위원
	김 성 식	서울교육대학교 부총장
	송 인 규	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
	김 도 형	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
	조 상 미	중앙사회서비스원장
	김 수 완	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
	김 현 아	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